

## 민주 대선후보 '호남 백년대계' 공약 마련 부심

1차 선거인단 호남·호남연고 유권자가 40% ... 경선 판도 좌우 호남경선 앞두고 발표 ... 민심 움직임 폭발성 큰 공약 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 공약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말 대구·경북과 강원지역 순회경선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선 판도는 1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12일)와 추석 연휴 직후의 호남지역 경선(광주·전남 25일, 전북 26일)에서 결정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64만 명에 달하는 1차 선거인단의 경우 호남 색채가 뚜렷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이라는 점에서 1차 선거인단에 호남 및 전국국의 호남 연고 유권자들이 40%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여기에 호남지역 경선 선거인단은 20만 3613명으로 총정(7만64532명), 대구·경북(1만 6128명), 강원(1만6278명) 선거인단 합계의 두 배에 이른다. 호남 민심의 지지에 따라 경선 판도의 지각변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대선 공약 발굴은 물론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청지역 경선을 통해 대세론의 날개를 펼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지역 경선에서 사실상 결선투표가 없는 매직넘버 카운트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어전

운동장인 호남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대선 공약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 대선 공약과 함께 싱크탱크에서 마련한 공약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선제적으로 오는 12일이나 13일 호남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직전에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충청지역 경선에서 일격을 당한 이낙연 전 대표 진영도 반전의 계기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일단 전열을 정비한 이 전 대표는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호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선거인단 참여가 많은데도 호남 민심에선 이 지사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역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주말에는 호남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 주자들도 호남 민심 공약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는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 지역 경선에서 3위 자리를 굳히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 간다는 전략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호남 민심의 개혁 성향에 지지를 호소, 결선 투표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세대교체라는 화두로, 김두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의 진정성으로 호남 민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호남 공약도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작·간접적으로 나온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호남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광주는 군 공항 이전, AI(인공지능) 산업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활성화 등이다. 전남은 품격·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우주항공산업 유치, 스마트 농수산업 기반 조성, 전남지역의 대

설립을 토대로 하는 공공의료분야 확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공약으로는 도로·항만·철도 등 SOC 확충,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에너지 공동체 프로젝트인 RE 300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선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타 후보 공약과의 차별화는 물론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폭발성 있는 공약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두 축은 정권재창출과 낙후된 지역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특히, 호남 민심이 그동안 전략적 선택을 통한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 후보들 국가균형발전 공약 빈약"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지면 대담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박재영 광전위원장 등 한목소리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지역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공약이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없고, 내용도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과감한 국가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컨트론타워 가칭 부총리급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출범, 남해안 신수도 조성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5면>

'신 국가균형발전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한 대담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속된 광주 일보의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시리즈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담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할 '상수'라며 "노무현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지 못하면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자본 집중이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 등 여러 아젠다에 국가균형발전이 밀려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국가불균형의 시정 없이는 국가 발전도 어렵다는 것이 대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으며, 세종시에 이어 남해안권의 새로운 수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타당성 기준에 정량적 지표와 함께 지역 낙후도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 정성적 지표를 대폭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영국, 프랑스 등은 낙후도와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주도로 먼저 투자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영·호남지역에 전에 없던 파격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구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컨트론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으나, 행정통합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을, 김 지사는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초광역경제권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진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나마 일부 후보들만이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고, 제시된 균형발전 공약 대부분이 고민한 흔적이 없이 진부하고 공허한 내용이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특정지역의 환심성 공약보다는 대선후보로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발전구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지역 한 중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광양읍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양서 중학생 21명 코로나 집단감염

해당 학교 원격수업

광주 외국인 사업장 8명 확진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21명과 학생 가족 4명 등 25명이 코로나 19에 집단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에 대해 전면 이동중지를 권고하고 집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감염 차단에 나섰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의 한 중학교 교직원

과 학생 581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에서 학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이 학교 학생 1명이 확진되자 전수검사에 나섰다. 이어진 학생 가족 등에 대한 검사에서 이날 오후 5시까지 추가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학생 동생 2명, 모친 2명 등 4명이다. 전남도는 이날 광양읍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이동검사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검사를 지원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오는 17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의무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검사 관련 8명,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3명,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3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3명 등 모두 18명이 신규 확진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타버스·방송·AI·게임·캐릭터  
애니메이션·AR·VR  
광주 콘텐츠 종합전시회

www.acefair.or.kr

# 2021 메타버스, 그이상의 콘텐츠

# 광주에이스페어

## 9.9 THU - 12 SUN

## 김대중컨벤션센터

https://www.acefair.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관: 김대중컨벤션센터, KTCT, KCTA, gicp, kotra

협찬: 연합뉴스TV, 한국직업방송, NC, TVCHOSUN, MBN, 한국경제TV, 특별협찬: LG전자, LG헬로비전

- 1. 메타버스 콘텐츠 주제관 Metaverse Ship**  
여행&레저 / 엔터테인먼트 / 바이오&헬스 / 메타버스 플랫폼 / 문화&예술 / 패션 뷰티
- 2.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 (CDC) Contents Developer Conference**  
Facebook의 기초연설을 포함한 메타버스, OTT, 5G, Future commerce 분야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 강연
- 3. 시민참여 프로그램**  
·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 미디어파사드 특별관 "미디어 파크"  
(디스트릭트 자이언트 플라멩고, 핑크 라쿤 작품 관람 외)  
· 초청작가 프로그램 (떠영 블루스, 쇼썬의 시간, 로사, 미야캣)  
· 다 함께 게임문화 talk 콘서트  
· 즐거운 코딩(MODI)을 활용한 AI 코딩교육  
· 보드게임대회&체험전 / 세모귀 마켓
- 4. 공개 방송 프로그램**  
· '그곳에 살아본다' / 송준근 (개그맨), 나상도 (가수)  
· 팔도밥상 스페셜 쿠키쇼(이원일 셰프) / 참석자 밀키트 제공  
· 라디오 음악쇼 <K-RIDE, UNVCOED, MEN ON AIR, SWEET RANDEVOUS(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 손태진)>